

정화에 가장 큰 힘 발휘

쓰레기줍기·합성세제 추방운동 등 생활화



九州와 四國에 둘러싸인 해역으로서 佐田岬반도 이남이 豊後(봉고)水道이다. 그 豊後水道의 愛媛縣해역을 宇和海라 부르고 그 宇和海의 중심지에 인구 7만명의 宇和島시가 있고 시의 남북단에 三浦반도가 있다. 그 반도의 북쪽의 한쪽에 遊子漁協이 있다.

주민들은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보물인 바다가 쓰레기로 오염되고 있다. 그 바다를 지키기 위하여 일어난 부인들의 활동을 소개한다.

1970년 村사무소가 제창하는 「생활환경 미화운동」을 이 지역의 부인들이 하게되고 그것을 기회로 부인들은 날짜를 정해서 바다 쓰레기 줍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깨끗하게 쓰레기 줍기를 해도 다음날이 되면 바다는 쓰레기로 가득차는 상태였다. 부인들은 머리를 맞대

고 대책을 협의한 결과, 「遊子を 깨끗히 해도 인근바다에서 흘러들어 오고있다. 인근어협에도 협력을 호소하자」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지 않는가,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않도록 하자」고 결정했다. 즉시 부인들은 조합장에게 인근 어업협동조합에 협력을 호소하게 하고 다시 각 가정에 대하여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않도록 적극 당부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던 복병의 저항에 마주치게 되었다. 그것은 할머니들이었다.

「쓰레기를 바다에 버려서는 안된다? 그런 바보스러운 일이 있을까」라며 반대의 소리가 나왔던 것이다.

遊子지역은 집앞이 바다이므로 예로부터의 습관적으로 작은 쓰레기는 방에서 마당으

로 쓸어버리고 그리고 해변의 쓰레기는 바다로 쓸어 버리는 습관이 있고 그 역할을 할머니들이 맡고 있었던 것이다.

「매일 청소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우리들의 낙이 없어지는게 아닌가」라고 말하는 할머니들의 의견에는 무게와 박력이 있었다. 말하자면 오랜 생활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었다. 부인들은 모임을 거듭 갖고 대책을 협의하였다.

“예전과 같은 실보푸라기나 휴지 쓰레기라면 쓸어버려도 문제는 없지만, 지금의 쓰레기는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주머니나 나일론제품이 많아 그것을 바다가 소화할 수 없다. 그 폴리에틸렌이나 나일론 주머니는 선박의 프로펠러에 휘감기든가, 엔진의 순환수펌프를 막히게 한다. 그리고 바다는 방어나 진주를 양식하는 어장이므로 더럽혀서는 안된다.” 등을 상냥하게 이야기하여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설득하였다.

할머니들에 대한 설득은 주부가 중심이 되어 가족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온가족이 모두 설득 활동으로 이어졌다.

또 바다쓰레기는 그때까지 바위가 많은 바닷가나 해변의 모래밭에서 태우고 있었지만

양이 의외로 많아 전부처리할 수 없다. 부인部로부터의 요구도 있어 어협으로서는 즉시 빈 석유드럼통을 이용한 간이 소각로 25개를 제작하여 각 지구에 배치하였다.

이 소각로의 설치가 할머니들의 쓰레기 버리는 장소로 점점 이용되어졌다. 할머니들에 대한 설득활동은 노인, 아이들을 포함한 온가족의 활동으로되고 그것이 전지역의 운동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그 당시의 에피소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遊子로 온 바다 낚시꾼이 낚시도중에 담배꽂초를 무심결에 바다에 버렸는데 그때 옆에 있던 어린이가 「아저씨, 담배를 바다에 버리면 안돼요」라고 주의. 이 이야기가 시내에서 이야기거리가 되었다고 듣고 있다.

드럼통의 간이소각로는 쓰레기 처리에 큰 역할을 했다. 청소하는 날은 각 지역에서 밤늦게까지 새빨갛게 쓰레기를 태운다. 그런데 이것이 화재의 걱정거리로서 지역의 문제가 된 것이다. 그래서 부인들이 모여서 협의한 결과 화재라도 일어나면 큰 일이다. 안심하고 태울 수 있는 대형소각로를 설치해 주십사하고 村長에게 진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날, 九州지역의

큰 비로 많은 나무가 해변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 처리가 어려워 어협에 상담했다. 쓰레기를 일시적이거나 쌓아둘 장소가 없으므로 村사무소의 광장에 임시로 모아두게 되었다.

2~3일 지나서 광장의 쓰레기를 제거해 달라는 村사무소의 요청이 있었지만 대량의 쓰레기였으므로 다시 옮길 수 있는 장소가 없었다. 할 수 없이 그 쓰레기더미에 석유를 부어 불을 질렀는데 2일간이나 계속됐다. 村사무소로 부터는 꾸지람을 들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 일이 영향을 미쳤는지 부인들의 진정이 채택되어서 대형소각로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수익자 부담으로서 7만 엔을 부담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인이 그와같은 큰돈을 부담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또한번 실정을 호소하여 무상설치를 진정, 그래서 마침내 전지역에 무상으로 설치될 수 있게 된것이다.

이 바다의 청소는 그로부터 매달 날짜를 정해서 온지역 전체의 활동으로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부인들은 자기들이 살고있는 이 마을을 쾌적한 곳으로 하고싶다는 그 뜨거운 정을 바다 청소에 담아서 일편단심

으로 바다를 쓸고 있는 것이다. 그 활동이 마을의 생활습관을 바꾸고 어린이의 마음속에 사람의 생활방식을 습득시켜 갔다. 바다를 청소하는 부인들은 자기 스스로의 마음도 쓸고, 스스로를 바꾸고 스스로를 발전시켜 간 것이다.

1973년 8월 13일부터 14일에 걸쳐서 遊子만에 발생한 김노지움의 적조로 양식 방어 1년생 20마리가 죽었다.

縣의 수산시험장에 따르면 宇和島시의 항내에 발생하고 있던 김노지움의 수괴가 최근의 큰 비와 須賀川댐의 방류로 앞바다로 밀려나가서 그 적조수괴가 조수의 흐름으로 遊子만에 유입, 만내에서 다시 증식되어 큰 피해를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부인들이 바다쓰레기를 주어서 깨끗하게 해왔던 遊子の 바다도 처음듣는 김노지움을 유발시키는 부영양화가 진행되어 위험한 상태였다는 것은 큰 충격이었다. 김노지움이 폭발적으로 발생한 바로 위쪽에 있었던 활어조의 방어가 대량 폐사된 것이다.

부인들은 즉시 학습, 협의를 거듭하여 먼저 바다의 부영양화상태를 없앨것. 다음에 적조발생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인(磷) 성분의 공급을 단절할 것

등의 두가지로 좁혀서 운동을 일으키기로 하였다.

첫째, 바다의 부영양화의 주요 원인은 양어의 생사로 공급이 아니겠느냐 생각하여 양식업자들과 협의한 뒤 해동하는 생사로 공급을 중지하고 동결상태의 투이(投餌)로 다시 모이스트 필레트 투이로 바꾸게 되었다.

둘째, 적조발생의 결정적 요인이 되는 인 성분은 합성세제라는 것. 그 주성분인 ABS나 LAS의 농도가 0.02PPM 정도에서 적조 플랑크톤의 증식이 시작되는 것을 인식하고 합성세제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합성세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부인들의 사고방식과 실천에 의존하므로 부인들이 힘을 모아서 합성세제를 추방하기로 결의 하였다.

먼저 어협 부인부의 간부부터 실천을 시작하였는데 일반 부인들의 이해를 얻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우물물에는 약간의 해수가 혼입하므로 비누거품이 잘 일지않고, 세탁이 잘 안되고, 비누찌꺼기가 생긴다.” 등의 반발이 많았다. 비누사용의 추진활동 중에 “潮水가 섞이지 않은 음료수를 주십시오.” 운동이 일어나고 마을이 집단

으로 큰 우물 파기를 하는 지역이 나오는 등 부산물까지 있었지만 생각한대로 확산되지 않았다.

학습과 협의를 통한 결과 합성세제는 적조발생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건강에 관련되는 것을 알았다.

합성세제는 피부장애를 비롯하여 간장이나 신장등의 내장장애나 정자 난자 장애, 태아장애, 나아가서는 환경수계(水系)로 유입하여 생태계의 장애를 주는 외에 하수처리장의 기능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제액을 비누액으로 물고기의 내성(耐性)을 비교하는 수조실험을 하여 세제의 특성을 이해시키는 연수를 하는 등의 추진활동을 거듭해 갔다.

적조발생의 방지로 비롯된 합성세제 추방운동은 인간의 생명이나 환경을 지키는 운동으로까지 발전해 갔다. 간부만의 운동에서 일반 부인 부원으로 그리고 청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온 지역 전체로 확산되기까지 실로 수년간의 노력을 거듭하고 있었던 것이다.

1978년 8월 3일 가루비누 배포, 합성세제 회수의 교환 운동 때문에 모인 사람들은 부인에서 청년, 노인 그리고 농협과 어협 조합원까지를 포

함해 村의 19개 조직 대표로 131명이 어협광장에 집합, 30대에 가까운 트럭으로 8개반을 편성하여 村 전체를 돌며 교환을 하였다. 그 성과는 회수한 합성세제 964개, 배포한 가루비누 1,694개였다.

이 교환운동의 결과는 지역주민의 90%이상이 비누사용을 하게 되었고 그 후 어협과 농협의 부인부임원이 공동으로 가루비누의 예약구매를 행하여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1979년에는 宇和島블록의 부인부 대회에서 비누를 보급시키는 실천활동 보고를 부인부장이 하고 이 발표를 계기로 宇和島블록의 町 村에 비누사용 운동을 확산하였다.

1980년의 琵琶湖(비와호)비누 심포지움에 출석한 부인부장들을 인이 없는 세제도 합성세제이고 인간의 건강이나 자연환경에도 좋지 않다라는 귀향보고를 했다.

1982년 1월에는 松山市와 新居浜市등의 시민부인이 어협부인부와 합동하여 「비누를 보급하는 愛媛縣 연락회」를 결성하여 부인들의 비누사용 추진 운동의 본체가 탄생하였다.

1985년에 들어오면서 부인들은 식용유의 폐유나 먹다남은



밥, 굴껍질등의 폐품을 이용하여 비누를 손수만들기 시작했다. 생활폐물의 리사이클과 비누사용을 겸용한 생활의 지혜라고나 할까. 어협의 주차장이나 광장에 모여서 생글생글 웃으며 비누를 손수 만드는 풍경이 흔히 눈에 띄게 되었다.

1990년12월 宇和島市가 시청사 내에서는 모두 비누 사용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다시 인근 町 村으로 파급코져하고 있다.

부인들은 자기들이 살고있는 마을, 고향을 살기좋고 쾌적한 곳으로,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싶어 한다. 그 뜨거운 정을 바다청소에 담아서 일편단심으로 바다를 청소한 것이다.

또 합성세제 추방과 비누를 보급하는 운동 가운데서, 스

스로도 자연을 파괴하는 가해자임을 깨닫고 끈기있게 비누를 애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생활의 편리와 효율을 구하는 행위가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스스로의 건강을 손상하는 것, 그것은 그대로 생산을 부정하는 것에 이어진다는 것을 배웠다.

부인들은 바다를 아름답게 하는 운동과 비누를 보급하는 운동중에서 스스로도 발전해가고 遊子村을 일본 제1의 마을이 훈훈한 마을로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합심하여 활동하고 있다. ♪

(筆者: 古谷和夫 遊子漁業協同組合)